



UR 농산물협상과 양돈산업의 발전방향

이재욱

(농경련 국제농업실장)

○ UR협상 전망

보다 자유화된 농산물 교역질서의 수립을 협상목표로 지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출범한 UR 농산물협상은 4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주요 이해 당사국간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계획된 1990년말 협상타결에 실패한 채 지난 12월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협상연기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향후 협상을 전망하건대, 비록 UR 농산물 협상이 계획된 기간내 타결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세계 농산물교역의 위기를 초래할 지도 모를 협상결렬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협상참가국들은 협상결렬이 가져 올 국제 무역상의 엄청난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은 결렬보다는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의견절충을 계속 시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기적인 순연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UR 협상의 결렬은 전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GATT체제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현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각국의 자의적인 수입규제조치의 만연과 쌍무적 통상마찰에 따른 범 세계적인 교역분쟁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협상참가국들은 첨예한 이해대립 속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예상되는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방향은 협상의 양대지주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C가 과연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나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와 함께 브뤼셀 각료회의의 농산물그룹 의장인 헬스트롬의장의 비공식중재안(Non-Paper)에 바탕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EC간에 가장 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쟁점은 동 협상의 접근방법문제로 미국은 협상의 3대요소인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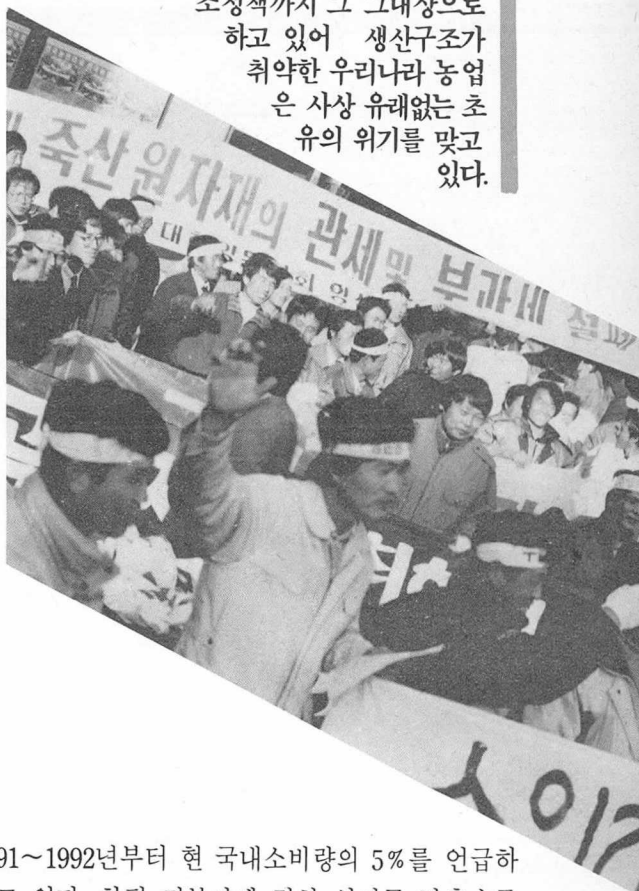
출경쟁분야를 각각 분리·독립시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협상하자는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EC는 국내보조분야에서 측정된 종합적인 농업보호수준을 점차로 감축시키면 자연적으로 국경보호의 수준 및 수출보조가 감축될 것이므로, 국경보호와 수출보조분야를 국내보조와 별도로 분리시키지 않고 국내보조분야만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기초해 협상을 하자는 총체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C의 이러한 주장은 시장상황의 명료성(transparency)이 없다는 점과 아울러 UR 농산물 협상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수출보조금의 우선적이고 신속한 상당한 감축”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과 합리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헬스트롬의장의 비공식중재안이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EC간의 의견대립으로 브뤼셀 각료회의의 결렬위기가 대두되자 농산물협상그룹 그린룸(Green Room)회의 의장인 스웨덴의 헬스트롬의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농산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미국 및 케언즈그룹 그리고 EC의 입장을 중재하는 막후 비공식협상을 시도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을 위한 최종 협상안을 작성, 각국에 배포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국내보조분야에서는 1991년부터 5년간 30%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허용대상 정책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국경보호 분야에서는 관세화 또는 향후 합의된 약속방식에 따라 1991년부터 5년간 30%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19

현재의 UR농산물 협상은 각국의 국내정치는 물론, 국내농업보조정책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산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은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91~1992년부터 현 국내소비량의 5%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전분야에 걸쳐 선진국 감축수준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도국 우대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은 세계 각국의 농업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개방화, 국제화를 강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협상타결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EC의 감축약속이나 헬스트롬의장의 비공식 중재안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협상에 초점을 두고 전력을 기울여 왔던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을 감안한 예외품목의 인정 및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

급도 없는 실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같은 우리나라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UR 농산물 협상이 각국의 국경 조치는 물론, 국내 농업보조정책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농업개혁을 의도하고 있는 바 여전히 생산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으로서는 실로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양돈산업 발전방향

그러나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이 반드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 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은 우리나라에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모든 체약국이 국제화, 개방화를 이행해야 하는 약속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나라도 수입제한 등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돈산업의 경우, 토지절약적이고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몇가지 미비점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UR협상이 돈육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UR 농산물 협상 및 주요 통상국들로부터 수입개방압력으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농산물 수출증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UR협상이 양돈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돼지고기는 다른 품목과는 달리 가격경쟁력이 있어 수출가능품목으로 꼽히고 있는 바, 향후 발전방향은 수출경쟁력을 얼마나 제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돈육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양돈산업의 발전방향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생산원가의 절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돈육 kg당 생산비는 주요수출국인 덴마크, 대만에 비해 20~30% 높다. 이들과 경쟁하려면 최소한 20~30% 절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료의 적기급여 및 경영합리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육규모의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켜 생산비절감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도축장시설의 근대화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도축장이 규모가 영세하고 도축기술 및 위생시설이 미비하여 품질경쟁력이 뒤지는 바, 이를 위해 도축장의 증축·신축에 대한 자금지원과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현행의 행정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축장을 경영권 중심으로 광역화·권역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육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격경쟁력 못지 않게 비가격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육질 개선에도 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급육에 대한 수출수요가 향후 소득증가와 더불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육질개선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급여사료의 양과 질을 조절하고 도축과정에서 PSS와 PSE, DFD육 등 저품질 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축전 양돈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수입국에서 국민건강을 이유로 검역을 중요시함에 따라 설파메타딘 등의 항생제와 항균제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체등급제의 실시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양돈사료급여는 고급부위의 생산보다는 비육속도를 빨리하여 조기에 출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고열량사료를 급여한 후 85kg 전후해서 출하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공급, 사육, 도축, 가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개선과 이러한 모든문제를 균형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다. 그 결과 수출규격돈의 확보가 어려우며 비경제적인 사육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체등급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급부위 생산 및 수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돈육수출시장인 일본의 돈육수입 패턴이 고급부위에 치우쳐 있고, 차액관세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고급부위 수출에 주력해 나가야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부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종돈 및 사육기술을 개량·보급하고 고급부위를 절단할 수 있는 기능공 육성도 필요하다. 특히 일본시장에서 냉장육은 냉동육에 비해 20% 정도 가격이 비싼데, 이의 수출확대를 위해 위생시설 및 포장기, 저온저장시설 등의 시설확충도 요구된다.

여섯째, 잔여육의 처리대책수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돈육은 부분육이 아닌 지육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돈육의 가공산업이 잔여육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잔여육의 처리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돈육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 돈육가공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분뇨 및 폐수시설의 강구가 요구된다. 분뇨 및 폐수처리 문제가 날로 증가하여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생산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돈폐수의 재활용방안 강구 및 영세 양돈농가에 간이처리시설비 지원 등이 요구된다.

이상에서처럼 UR협상과 관련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공급, 사육, 도축, 가공, 수출에 이르는 전과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모든 문제를 균형있게 풀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